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로 연기 변신 나선 **수지**

“거짓된 안나의 심리 변화 신경썼죠”

고교생 유미에서 상류층 안나로 화려한 변신 심리 불안 연기 위해 전문가 찾아 자문 받아 “안나의 거짓된 삶보다 수지로 사는게 행복해”

“완전히 새로운 저를 보여드릴게요.” ‘첫사랑의 아이폰’ 수지(배수지·28)가 힘주어 말했다. 그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로 “변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을 비롯한 로맨스 장르로 선보여온 톡톡 튀는 매력을 잠시 접었다. 성공을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는 삶을 사는 여성을 통해 “갯빛으로 흑화”한 얼굴을 새롭게 드러낸다. 그는 21일 서울 등교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안나’ 제작발표회를 열고 “부담도 되지만 어쨌든 이유 모를 자신감이 든다”며 웃었다. 또 “내가 그랬듯 시청자들도 단번에 ‘안나’에 푹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 “10대부터 30대까지 연기”

수지는 극중 평범한 이름과 가족, 학력까지 모든 것을 위조해 화려한 상류층 여성 안나로 살아가는 고교생 유미 역을 연기한다. 허구의 세계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뜻하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졌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큰 인물이에요.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죠. 그야말로 예측 불가의 삶을 살게 돼요. 그사이 굽이치는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담기 위해 신경을 썼죠. 보는 사람들이 유미와 안나를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꼈으면 했어요.”

1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인생을 그리면서 가짜 대학생, 호텔 직원, 유망한 벤처기업 대표(김준한)의 아내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를 위해 “교복, 유니폼, 화려한 명품 브랜드 등 다채로운 의상”을 끊임 없이 갈아입었다.

“한 작품 안에서 이렇게까지 스타일 변화를 준 건 처음이에요. 정각장애인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위해 수어도 따로 배웠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심리 변화가 핵심인 캐릭터를 위해 심리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유미가 안나로 변해가며 느끼는 불안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 “수지로 사는 기분? 좋아요!”

“캐릭터의 매력”이 도전에 발을 들인 결정적인 계기다. 지난해 가을부터 8개월가량을 드라마에 쏟아 부었다. 3월에는 끝없이 펼쳐진 알래스카의 설원에서 절절한 감정 연기도 펼쳤다.

“배우로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안나로 사는 게 쉽지않은 않았어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돼!’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죠. 안나가 아닌 수지로 사는 기분은 어떠냐고요? 솔직히, 엄청 좋아요. 하하하!”

때때로 “사람들이 내 변신에 공감해줄까?” 하는 고민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안나의 대사인 “마음먹은 건 다 해”라는 말을 떠올린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설레기도, 부담되기도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안나가 말한 대로 ‘마음먹은 건 다 해보자’는 심정이에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수지가 21일 서울 등교구 여의도동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안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lh1147@donga.com



공포장르의 계절 마니아를 잡아라

MBC '심야괴담회2' 시작 웹이브, 공포 기획전 선배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방송가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공포 관련 콘텐츠를 앞세워 시즌 공략에 나섰다.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콘텐츠를 확보해 마니아 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의 호기심까지 자극한다.

MBC는 공포 소재의 예능프로그램 '심야괴담회'의 시즌2를 최근 새롭게 내놨다. 방송인 김구라, 김숙, 이이경, 마미유 솔라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제보한 다양한 괴담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매회 게스트 연예인이 직접 겪은 일화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시즌1을 통해 마니아 시청층을 쌓았다. 공포 장르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여름 시즌에 맞춰 방송을 재개하면서 시청자 폭을 넓히고 있다. 방송 화제성조사회사 굿데이 터코퍼레이션의 비드라마 TV 검색 반응 8위를 차지했다. 유튜브로 공개한 방송 영상도 공개 하루 만에 21일 30만 뷰를 기록하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올랐다.

OTT 플랫폼도 관련 신작을 발 빠르게 내걸었다. 웹이브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6회 부산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공포 및 판타지 장르 상영작 138편을 상영한다. 최근에는 '서울괴담' 등 신작과 '양들의 침묵', '검은 사제들', '갯아웃' 등 흥행 영화를 모은 '강렬한 비주얼의 호러' 기획전을 메인 화면에 띄웠다. 21일 웹이브 관계자는 공포 장르가 “강한 개성으로 두터운 마니아 시청자를 확보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티빙도 '파라노이드 액티비티', '링', '기괴괴담 성형수' 등 공포영화 시리즈를 '공포 특집'으로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브로커’ 이동휘·‘헤어질 결심’ 김신영...특별출연도 명품!

‘마녀2’ 엄태구 짝지만 큰 존재감 ‘탐견2’ 발 길머 목소리 복원 눈길

분량은 ‘찰나’이지만 효과는 주연 못지 않다.

배우들이 짧은 등장 분량으로 영화의 재미를 더하며 잇달아 ‘특별한 출연’을 해 준 재능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출연’이라는 크레딧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15일 개봉한 ‘브로커’의 박찬욱·송새벽·이동휘·김새벽·이무성이 선두에 섰다. 연출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러브콜에 힘입었다. tvN ‘나의 아저씨’를 보고 아이 유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감독은 이 드라마

에 함께 출연한 박해준과 송새벽을 비롯해 그동안 한국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눈여겨 보아온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특히 극중 경찰인 배두나와 손잡고 송강호 등 브로커 일당을 속이기 위해 나서는 이동휘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웃음을 자아내 울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상영에서 박수까지 받았다.

29일 개봉하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는 유태오·이학주·고민시가 나온다. 또 개그맨 김신영이 이번 영화 특별출연으로 스크린에 데뷔하며 정극 연기를 선보인다. 주인공인 형사 박해일이 뒤쫓는 범인으로 등장하는 박정민도 문신 등 분장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눈길을 끈다. 이

를 인연 삼아 박 감독의 최근 아이폰 단편 영화 ‘일장춘몽’에도 출연했다.

엄태구도 있다. 15일 선보인 뒤 ‘범죄도시2’를 밀어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마녀 파트2. 디 아더 윌’(마녀2)에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분량으로 깜짝 등장한다.

8월 관객을 만나는 이정재의 첫 연출작이자 정우성과 공동 주연한 ‘헌트’에는 이성민·황정민·주지훈·김남길·조우진이 나선다. 이정재는 “나와 정우성이 함께 출연하는 영화를 기다렸다는 동료들이 축하의 의미로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며 먼저 제안해줬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할리우드 스타도 빠질 수 없다. 22일 공개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탐견:매버릭’



영화 ‘브로커’ 이동휘(왼쪽)와 김새벽.

에는 1986년 개봉한 1편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아이스맨’으로 등장한 발 길머가 특별출연했다. 특히 그가 후두암 수술 후유증으로 본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자 제작진은 인공지능(AI) 컴퓨터를 이용해 이를 복원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승미 기자 smile@donga.com

연예뉴스 HOT 5

톰 크루즈 주연 ‘탐견: 매버릭’ 예매량 20만 돌파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탐견: 매버릭’이 개봉을 하루 앞두고 사전 예매량 20만 장을 돌파했다. 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사전 예매량 20만 4697장을 기록했고, 예매율은 58.8%를 돌파했다. 이는 감염병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범죄도시2’의 전날 동시기 예매량인 19만2748장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톰 크루즈의 대표작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의 예매량 22만6730 장과 비슷한 수치다.

음주운전 구속 기소된 MC딩동, 집행유예 석방



MC 딩동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MC 딩동(허용운·4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상 등의 혐의를 받는 MC 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C 딩동은 2월 17일 밤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MC 딩동은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강호동, 故 송해 광고 이어받고 수익 전액 기부



강호동

방송인 강호동이 고 송해가 생전 모델로 활동했던 숙박·레저 예약 서비스 플랫폼의 광고 바통을 이어받고 광고 수익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21일 소속사 SM C&C 측은 “강호동이 고인을 향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으로 고인의 광고 콘셉트를 그대로 재현한다. 이번 광고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사단법인대한민국방송미디어연회에 기부돼 후배 코미디언 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호동이 이어받은 신규 광고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공개된다.

옥주현, ‘인맥 캐스팅’ 외친 김호영·누리꾼 고소



옥주현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인맥 캐스팅’ 논란과 관련해 김호영과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21일 옥주현 측에 따르면 옥주현이 인맥을 이용해 뮤지컬 캐스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SNS에 올린 김호영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20일 고소했다. 김호영은 앞서 14일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공연 캐스팅에 옥주현이 개입했다는 일부 누리꾼의 의혹에 불을 지폈다.

배우 이하늬 딸 출산...“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이하늬

배우 이하늬가 딸을 출산했다. 21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이하늬가 지난날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의 축하와 보살핌 속에 안정을 취하고 있다. 따뜻한 응원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새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한 배우 이하늬와 태어난 아이에게 많은 축복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하늬는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